

VII. 北韓 動靜

輕水爐 事業 再開 및 4자 會談 展望

- (背景) 11월 24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제네바 합의 이행에 합의, 잠수함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사업 재개 및 4자 회담의 계속적 추진의 길이 열림
- (輕水爐 事業 및 4자 會談 再開 條件) 정부는 북한의 명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의 사과 제스처를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輕水爐 事業 展望) 미국의 중재와 압력, 북한의 핵합의 파기시 돌아올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 부담 등으로 연초의 새로운 정책 전환기를 이용한 사업 재개 가능성이 큼
- (4자 會談 展望) 북한이 이미 거부하였으며 장래 전망도 어두우나 4자 회담 설명을 위한 남북한 및 미국간의 3자 설명회의 가능성은 상존

잠수함 사건 제재 방안으로 한국은 경수로 사업 지원 중단하였으나 미국의 요구로 제네바 합의 이행 합의

- (背景) 11월 24일 APEC 한미정상회담에서 제네바 합의의 이행과 4자 회담의 중요성에 합의, 잠수함 사건으로 중단되었던 경수로 사업 재개 및 4자 회담의 계속적 추진의 길이 열림
 - 한미 정상은 잠수함 침투 사건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합의
 - 제네바 합의 이행과 4자 회담의 지속적 추진
 - 북한에 4자 회담 수락 촉구
 - 유사한 도발 방지를 위한 북한의 '수락할 수 있는 조치'를 촉구
 - 한국은 명시적 사과요구의 표현을 완화하여 미국의 북한 사과 지지를 끌어냈으며 미국은 제네바 합의의 핵심인 경수로 건설 사업의 계속적 지원에 대한 한국의 동의를 끌어냄

한국 정부는 북한
의 명시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
하고 있으며 미국
은 북한의 사과
제스처를 요구하
고 있음

○ (輕水爐 事業 및 4자 會談 再開 條件) 정부는 북
한의 명시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
으며 미국은 한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북한
이 사과제스처를 보이도록 중재하고 있음

- 한국은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
- 정부는 언론발표문이 ‘사과와 재발 방지’라는 종전의 요구에서 후퇴한 것이 아님을 강조
- 북한은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미국의 중재에 따라 사과 제스처는 보일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대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중재 노력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불가피
- 미국은 북한의 사과제스처 표명을 위한 막후 중재자 역할을 수행
- 미국은 북한의 사과 제스처에 대한 남한의 불만이 있을 경우에도 언론발표문을 내세워 경수로 사업 재개를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이 큼

경수로 사업은 미
국의 압력, 북한
의 핵위협 재개시
의 긴장 고조 책
임 부담 등을 의
식하여 내년 초쯤
북한의 사과 제스
처만으로도 재개
할 가능성이 큼

○ (경수로 사업 전망) 미국의 중재와 압력,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의 부담 등으로 연초의 새로운
정책 전환기를 이용한 사업 재개 가능성이 큼

- (현황) 특권·면제 및 영사 보호의정서, 동행의정서, 통신의정서가 이미 체결되었으며 잠수함 사건으로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부지인수 의정서와 서비스 의정서만 체결되면 부지공사 착공 가능
- 북한은 경수로 사업 지연에 대해 핵연료봉 봉인작업을 중단하는 등 북·미 제네바 핵합의 파기를 위협
- 미국은 제네바 합의 이행을 위해 경수로 사업 지원의 신속한 재개를 희망

북한의 핵개발 재개 위협으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반도 긴장고조의 책임이 한국에 돌아오는 부담이 있음

북한은 4자회담을 이미 거부하였으며 장래 전망도 어두우나 3자 설명회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지고 있음

북한의 3자 설명회 참가는 4자회담 참여의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대미 접촉수준 제고, 경제제재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제네바 합의 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북한의 도발, 공화당의 클린튼 외교에 대한 기선 비판 등으로 기존의 한반도 전략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
- 한국은 일단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임
- 비타협적으로 나올 경우 제네바 합의 이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그 결과 대미 갈등 심화와 한반도의 긴장 고조라는 역효과가 초래됨
- 연말 연시 사회 분위기의 변화, 연초의 새로운 정책 전기 마련 등의 기회를 이용하여 대북 유연책으로 선회, 경수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큼

○ (4자 會談 展望) 북한이 이미 거부하였으며 장래 전망도 어두움, 단 3자 설명회의 가능성은 상존

- (현황) 그 동안의 물밑 접촉으로 지난 10월쯤 4자 회담을 위한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설명회 개최가 유력시되고 있었으나 잠수함 침투 사건으로 부산
- 한국 정부는 4자회담도 북한의 사과가 있어야 열 수 있다는 입장 견지
- 4자회담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온 북한에 대해 사과를 전제로 한 회담추진을 밝혀 남한 정부의 4자 회담에 대한 기대가 사실상 없음을 시사하고 있음
- 북한은 이미 11월 28일 주한 미군 철수를 의제로 다룰 것을 주장, 실질적으로 4자 회담을 거부
- 북한은 3자설명회에는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 일부 완화, 북미 접촉 증대와 접촉 수준 제고, 부대효과로 외자 유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 북한의 4자회담 참여는 기존의 남한 배제정책의 수정을 의미, 따라서 상응하는 회담성과에 대한 미국의 보장이 없는 한 참여하지 않을 것임

(오 삼 교)